

## 특 집

# 양돈업계에 널려 있는 거품을 빼자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에서 빼야 할 거품



심 상 무 회장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 1. 서론

**작**년말부터 시작된 IMF구제금융 한파로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매일 당좌거래정지(부도) 기업란이 경제신문 한면을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부도로 인해 강제해고와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실업자 수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는 실정이며 경

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신규고용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국내 전 산업에 걸쳐 마비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 여파로 우리의 축산업 조차도 위기상태에 놓였다. 특히 IMF 한파 이후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업 존폐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더욱이 축산시설환경기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

본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 모두 수수방관만 해서도 안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름길을 택해야 할 것이며 좀더 나아가 거품을 줄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도 이러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공존의 개념으로 거품을 줄여야 할 것이다.

## 2. 본론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독창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환율 인상으로 인해 원자재 값의 상승과 소비자의 구매 저하로 축산 시설환경기계산업은 더없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접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나 연구노력 없이 타사제품의 단순모방 생산과 합리적인 품질 검증 없이 농가에 보급되어 투자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국산제품의 신뢰 추락과 시장경제 파괴로 이어져 비싼 외국제품을 선호케 하는 한마디로 거품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최악의 경제 여건에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축산시설환경기계산업의 안위를 위해서 한 두 품목이라도 장인정신에 입각한 전문화된 최고제품을 생산하여 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컨소시엄 및 토탈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업화가 긴요하며 표준화, 규격화로 부품의 공동구매와 금형의 공동사용 등으로 생산원가를 최소화 하는 경쟁력 제고만이 거품을 제거하는 생존 전략이며 IMF시대의 고환율 극복을 위한 수입대

체품목 개발촉진의 일환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산업의 특성상 다종소량 생산체계에서 생산시설의 현대화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므로 업계간 협업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축산시설환경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적인 방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먼저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에 대한 일부적인 업무는 처리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행정업무는 미비한 현실이며 축산시설환경기계의 분산되어 있는 업무자체를 한곳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축농가 정책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 지원사업에 등재하여 일괄성 있게 공동구매를 통해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판매루트를 정책적으로 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협회 전문위원회 및 학계·연구소 등과 연계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종합적 기술개발로 신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업체간 토탈시스템 체계를 구축, 축산시설환경기계의

첨단 산업으로 육성 해외수출 등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넷째, 업계에서는 단순한 투자 효과만을 갖고 투자를 지원하고 권장하는 것은 이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투자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제품에 대한 노후우성을 갖고 소모재가 아닌 축산시설환경기계의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입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축산시설환경기계는 시스템 산업인 만큼 한번 투자하면 상당한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결되어야만 우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국내 전 산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보니 축산업 자체도 나름대로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은 참으로 중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농림부 외에 타부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우리는 투자한 것이 그 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사진〉 우리나라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독창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있는가?

일년에 축산시설자금은 몇 억씩 투자되는데 정말로 그 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산시설환경기계의 연구 및 지원에 단돈 얼마가 쓰여지고 있는가? 그 쓰여지는 돈이 몇몇 외국 제작업체를 살찌우고 있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내포해볼 만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홀로설 수 있는 한국 축산업을 위해 축산시설환경기계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결론

서두에도 서술했듯이 첫째로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의 전문

화·표준화를 통한 한국형 모델 축사개발을 시급히 구축해야한다고 보며 둘째 축산농가의 악성 채투자를 막고 고품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 자금의 현실화 및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제도보완을 마련하고, 축산구조개선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축산경영자금 즉 수매비축 자금으로 전환된데 대해 정책발상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며 단편적인 사고라 생각되며, 현재 축사의 신축 또는 개축 중에 있는 시설 마저도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되므로 기존 지원된 자금도 수포로 돌아감으로 최소한의 시설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축산농가의 합리적 투자를 유도키 위해서 축산관련 종합엔지니어링(토탈시스템)사업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축산시설환경기계의 검사체계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고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공동구매사업 일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로 외국제품과 비교분석을 통해 경쟁력 우위 확보도록 하고 수출업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도 축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더불어 발전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축산시설환경기계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사육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의 경비로 양질의 산물을 생산하여 판로는 외국수출로 지상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후학 양성체계를 조기 도입하여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런 모든 시안들이 접목이 이뤄졌을 때는 우리의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은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키 위해서는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거품을 줄이면서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다. **養豚**